



'불교평론' 2006년 여름호

'재가자는 출가자보다 하열한가, 현생에 복을 뒤어 다음 생애 출가자로 태어나 불법을 믿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출·재가자는 단지 역할이 다를 뿐, 불법을 믿는 차원에서 차이가 없는가? 불교계 대표적인 대중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2006년 여름호 특집에서 한국 불교 재가의 위상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내러진 화두는 '재가불교를 생각한다'. 불교학자, 재가수행자 및 신행 운동가, 불교계 NGO 활동가 등이 논문 6편을 내놓았다.

특집논문에서 논의의 첫 포문을 연 박경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란 주제에서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박 원장은 특히 "유마경, 승만경 등의 대승경전에서는 출·재가를 계급화하거나 불교를 초월주의 또는 출세간주의화하려는 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재가자의 위상은?

해탈 가능성 · 삶과 수행의 조화 · 교육 등 거론



수레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진정한 수레가 된다. 화합 교단을 구성하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지난해 '우리함께 화합' 개관식에서 출·재가 지도자가 기념벽을 지르는 모습.

'일본왕 겸한 백제성왕' 자료발굴 눈길

이에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바가바드 기타>의 까라마 요가에서 재가자의 해탈 가능성을 가능했다. 허 교수는 "기타의 요가 사상이 삶의 현장에서 행위를 통해 해탈할 수 있다"며 "봉사하라, 의무를 이행하라"는 <기타>의 가르침이 현실적인 삶을 수행과 일치시켜 그 속에서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역설했다.

현실생활과 수행을 조화시키는 재가자들의 체험담도 소개했다. 재가수행단체 '선도회'를 이끄는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수행과 삶은 둘이 아니다'란 주제로, 현실의 삶과 수행을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했으며, 최영문 원불교 서울청년선방 지도법사(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원불교 재

가자로서 삶과 수행의 조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상적인 재가불교를 위한 제언도 제시했다. 성태용 '우리선우' 이사장(건국대 철학과 교수)은 "출가중과 재가중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불교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출·재가 각각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또 "출가수행과 재가수행은 달라야 한다"며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자들의 무분별한 '스님 흉내 내기'와 출가자들의 '하는 대로 따라 하라'는 식의 무책임함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장은 '오늘날의 재가불교교육을 돌아보다'는 주제로, 주요 불교대학 교과목을 중심으로 재가불교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불교평론>에서는 '백제 성왕이 일본왕을 겸임했다'는 홍윤기 교수(한국외대 교양학부)의 자료발굴, 혜심 선사의 선시 세계를 조명한 학해 스님(선운사 승가대 학감)의 '진각국사 무의자 선시의 미학' 등 다양한 논문들이 수록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8>

무어의 법칙

문명학자들은 지난 50년간의 인류의 발전이 그전 수 천년 동안의 발전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중세의 왕보다도 현대의 중산층이 훨씬 더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 속에는 자동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과 반도체 통신과 같은 전자 기술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당연한 통신 수단으로 여겨지는 휴대전화 역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생활필수품이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화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흔히 반도체 공학자들은 소형화의 척도로서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 한다. 무어의 법칙이란 1970년 대 초,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집적시켜

이하의 선폭을 구현하기 위해서 칩을 흘리고 있다. 칩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무어의 예측의 끝에 대한 많은 과학자들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소형화를 추구하는 공학자들은 인체 내부에 넣을 수 있는 미세 칩을 만들어 세포를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의료 기술 분야에도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변화의 많고 적음의 척도로 시간적인 변화율을 사용한다. 만약 변화율이 현재의 상태에 비례하면 그 변화율은 지수함수적인 변화가 된다. 어린이의 매년 키의 증가가 당시 키에 비례한다면 너무 빨리 커서 주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어느 정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다가 증가가 멈추게

반도체 소형화 기술 인간의 상상력 뛰어넘어 생활편리 이면에 무한경쟁 · 자연 파괴 불가피

칩을 만드는 소위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라는 기술을 산업화하기 시작할 때 한 개의 칩에 집적해서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매년 30%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말한다. 당시 이를 예측한 사람은 현재 모든 PC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인텔이라는 회사의 창업자 무어이다. 이러한 예측은 마치 진리처럼 과거 30년 이상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세계의 과학 기술자들은 칩의 면적은 증가시키지 않고도 무어의 예측대로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기 위해서 작게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칩의 최소인 최소 선폭 또한 매년 15% 이상 감소했다. 필자가 대학원생 당시 최소 선폭이 10마이크론 정도였는데, 현재 기술 그리고 이전의 반도체 연구소에서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50나노

되는데 이때 감소율 또한 지수함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수함수적인 변화의 모습이 자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의 모습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이 만든 무어의 변화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없이 현재 크기의 수십 퍼센트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어의 예측은 생활의 편리를 보장하지 못한 끝없는 경쟁과 자연의 파괴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부처님이 설하신 탐 진 치와 무어의 법칙이 어느 정도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무어의 법칙에 의한 과학기술 장비에 의해서 흥수도 쉽게 예측하고, 암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간과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의 현대적인 해석과 적용이 불가피한 당연한 과제라고도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금강대-파키스탄 편자브드 학술교류 협정

'올너컬렉션' 디지털화 추진

오스트리아 빈대학 공동 참여

금강대학교총장 조성환과 파키스탄 편자브드대학교 상호 간 학술교류 및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을 8월 2일 편자브드대학교 본부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 및 학생 상호 교류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공동 학술대회 추진 △공동연구와 학술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다.

특히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이번 체결을 계기로 국내 최초로 인도화/불교학 관련 필사본을 본격적으로 입수하게 되는 '올너컬렉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너컬렉션이란 편자브드 도서관장을 역임한 올너 교수가 인도 전

역에서 수집한 8000여점의 불교학 자료 필사본. 그동안 이 올너컬렉션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치적 분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올너컬렉션 디지털화 사업은 오스트리아 빈대학이 공동 참여하고 사업기간은 10년이다. 편자브대학은 파키스탄 편자브 라호르에 소재하고 있으며 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다. 세계 4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편자브대학은 단과 대학과 대학원 과정으로 문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동양학 이슬람학 과학 공학 치의학 의학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교직원 613명과 2400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매장문화재 지리 정보 웹서비스

문화재청, 공주·부여·김해·고령 등 4개 지역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정밀수치지형도상에서 문화유적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체계(GIS)'를 구축해 인터넷(gis-heritage.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7월 25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체계는 전국의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화유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공개에서는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고령군 4개소 지역 내 1592개의 유·무형문화재가 소개되며 이중 불교 관련 문화재는 김해 무상사와 공주 갑사 대웅전과 동종, 부여 무량사 등을 포함해 약 100여개.

문화재청은 "1: 5000 축척의 정밀수치지형도상에서 유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체계는 현재의 지형을 그대로 재현해 3차원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도 유적 주변의 지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음성지인 여수 향일암과 남해 보리암 등지를 순례하는 '2006년 여름 워크숍'을 연다.

대한불교선교종 행자모집

대한불교선교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본종단의 장기안목으로 종단 운영 및 수행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겸수하는 교화종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확고한 종단관과 사명감을 가진 눈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종단에서는 6개월간 모든 수행과정(염불, 행정등)을 종비생으로 가르치며 6개월 수료 후 각자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 수 있도록 본종에서 주선합니다.

■모집대상(5명~7명)

1. 고졸 이상 학력의 35세미만 군필자.
2. 부처님의 일불제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자.
3. 처음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
4.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5. 6개월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문의

- ◆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 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01호
- ◆ 연락처 : 051)462-6181, 6652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

무구정광대다라니범서 소장용 액자 및 사경집 발간



가격 5,000원 (윤물 예수제 사경기도 범보시 사용사찰은 할인 구매 가능함)

범서 반야심경, 범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범서 능엄주 외 모든 범서 다라니가 있습니다. (경명주사, 금니, 묵서) 소장액자는 덕산스님이 직접 쓰신 다라니입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의 복덕과 선근은 정성껏 계를 지키며 범답게 공양을 올리 고 이 주문을 77번 읽어주면 7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리라. 이 다라니를 지성으로 77번 외워주면 나쁜 곳에 태어났더라도 즉시 그곳을 떠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니라. 이 다라니를 집안에 모셔놓기만 하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물며 사경 하고 향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말로써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 범서 액자 10만원



· 금니 다라니 20만원

회원가입주문시본분께는 20%할인 되어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943-2107, 011-9585-0386
- 한글주소 : 불교기획(www.bulta.co.kr) 인터넷 주소창에 불교기획만 치세요.

※ 광명진언, 대불정능엄주 범서 사경본도 곧 출간됩니다.